“무리한 힘에 의한 북한의 현상 변경 원치 않는다”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북 비핵화 의지 보여주면 돕겠다”
“일본과의 관계 발전시키고 있어”
한국의 핵무장론엔 선 그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체제 위협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개한 대북 ‘담대한 구상’의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언급된 한일 관계에 대해선 “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과 관련, “미북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 투자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체제안전을 요구한다면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물음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저와 우리 정부는 북한에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전혀 원치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남북 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선거 과정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다만 남북 정상 간 대화나 또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복절에 발표한 그런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그런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핵무장론과 관련된 질문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며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과감한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다.

모두발언에서는 “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나가고 있다”며 “과거사 문제 역시 제가 늘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에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며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취임 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서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했다”며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분야 등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고 자평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취재진이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지난 정부와 결별한 정책기조 잘 보여줘”
민주 “빈 수레만 요란… 낯부끄러운 자화자찬”

윤 대통령 기자회견 엇갈린 평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진정성 있는 회견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들은 내용 없는 회견이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을 제대로 섬기겠다는 최고지도자의 의지 표명으로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잘 받들고 좇아가겠다는 자세 표명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정부 출범 후 100일 동안 쉼 없이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원칙 정립을 하고 민생경제 물가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을 홍보하는 국민에 제대로 알리는 그런 자세, 부동산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체질 개선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소상하게 설명한 부분은 굉장히 좋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두고 “낯부끄러운 자화자찬에 그쳤다”고 혹평했다. 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100일 간의 성과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나 정작 내용은 없었다”면서 “윤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성과를 하나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국민의 냉정한 평가”라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은 “국민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나 국정기조 전환, 인적 쇄신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은 없고, 100일 동안 국정 성과를 홍보하는 아전인수와 자화자찬, ‘마이웨이’ 선언에 그친 기자회견이었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오늘 광주 DJ센터서 추모식·음악회

22일 전남대서 학술 행사

민주 광주시당 “뜻 잇겠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광주에서 추모 음악회와 학술 행사가 열린다.

17일 김대중광주추모사업회에 따르면 18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모식 및 추모 음악회 등 추모 행사가 열린다.

추모식은 김 대통령에 대한 약력 보고와 추모영상 상영, 추모사 등으로 이뤄지며, 소프라노 김선희씨가 ‘당신은 우리입니다’라는 추모곡을 부른다.

추모음악회에서는 ‘아! 김대중 1924-2009’라는 제목으로 광주여성필하모닉 실내악단의 피아노 5중주 연주 등이 펼쳐진다. 또한, 광주시립창극단의 진도 씻김굿 공연도 이어질 예정이다.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존’을 주제로 한 학술행사도 오는 22일 오후 1시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의 김남주 기념홀에서 열린다.

이날 학술행사에서는 조대엽 고려대학교 교수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김대중의 평화협력사상’을 주제로 평화협력주의를 윤리적인 차원에서 해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근본 가치로 재조명돼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행사를 준비한 김양현 전남대 교수는 “어려운 시기를 건너고 있는 현재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과 통찰력을 재조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김 대통령의 뜻을 온전히 부활시키고 계승하겠다”고 다짐했다. 광주시당은 성명을 통해 “한 평생 독재정권과 맞서 싸우며 숱한 죽을 고비를 넘긴 인동초의 삶을 산 김 대통령의 일생의 꿈은 바로 한반도의 민주주의와 평화였으나, 윤석열 정부는 김 대통령이 남긴 뜻을 무너뜨리며 대한민국의 기틀 자체를 흔들리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준석 “당내 민주주의 고민 하다 보니 대통령 회견 못 챙겼다”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직접 출석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며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 심리로 열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선제적 판단에 따른 고민은 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두고는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불경스럽게도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당이 비대위 전환을 결정하자 이 전 대표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주호영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자동 해임됐다. /연합뉴스

2022년도「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사업」전기전자업종 패키지 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2년도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사업」의 전기전자업종 패키지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25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연구기반센터」에 구축된 다양한 연구장비와 전문인력,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전기전자업종 기업의 연구개발, 사업화 등 지원
  * 연구기반센터 : 연구장비, 전문인력,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기술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비영리기관

▪ **지원방법**
- 연구기반센터 간 연계 패키지서비스를 바탕으로 전기전자업종 기업 애로사항 해결 서비스 지원

▪ **지원기간 :** 선정일 ~ ‘22.12.28 이내
  * 선정 이후 별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계약 체결 기간에 기준함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전기·전자업종)

▪ **지원체계 :** 서비스운영기관, 서비스참여기관 중심으로 기업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 전기전자업종 기업의 연구개발, 사업화, 시험·분석 등 지원을 위해 아래 패키지서비스를 지원
- 해당 서비스 분야별 패키지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 (세부계약시 필요 서비스 선택)

– 정부지원금 70%, 기업부담금 30%의 사업비로 서비스 추진

〈 전기전자업종 패키지서비스 지원내용 〉

서비스 분야	패키지서비스명	지원내용	정부 지원금	민간부담금 (현금)
텍스트로닉스 기능성 소재·부품·제품	ICT 융합 텍스트로닉스 기능성 소재·부품·제품의 융·복합 성능·신뢰성 기술지원	– 신뢰성 평가 패키지 지원 – 성능·인증 평가 패키지 지원 – 고장원인분석, 성능개선 및 공정 개발 지원	15백만원 이내	총 사업비의 30%이상
산업용 비전 카메라 광학부품	산업용 광학계 개발 공정 및 측정 기술 지원	– 설계, 공정 및 측정 패키지 지원 – 신뢰성시험, 시제품 제작 – 사업화 시제품 제작 지원	10백만원 이내	
차세대 전기전자 신융합 부품	차세대 XR 메타버스용 디바이스 핵심부품 패키지 서비스 지원사업	– 차세대 메타버스용 XR 디바이스 및 핵심부품 관련 제품의 설계/개발/양산/사용 등 각 개발 단계별 기술지원 – 시험 목표 수립, 시험 설계, 시험수행, 시험인증 등 지원		

* 정부지원금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민간부담금은 현금으로만 계상

지원절차 및 일정

구 분	추진내용	추진기관	추진일정 1차	추진일정 2차
참여기업 선정	사업 신청 공고	구미전자정보기술원	‘22.07.27. ~‘22.09.09	
	참여기업 신청접수	온라인 접수 (www.i-Tube.or.kr)	‘22.07.27 ~08.19.	‘22.08.22 ~09.09
	참여기업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구미전자정보기술원)	‘22.8월 말	‘22.9월 중순
	평가결과 통보	대표기관 → 참여기업		
	민간부담금 입금	참여기업 → 서비스운영기관 계좌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서비스 지원	서비스 필요내용 협의 및 계약	서비스운영기관 → 참여기업	‘22.9월 초	‘22.9월 말
	서비스 지원	서비스운영기관, 서비스참여기관	계약기간 내	
	완료 검수	서비스운영기관 ↔ 참여기업	검수 완료시	
	서비스 만족도 조사	참여기업 (www.i-Tube.or.kr)	검수 완료 이후	

*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 가능하며, 사업 공지 및 상세·변경 일정은 i-Tube 통해 확인
* 2차 공고는 1차 선정 및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미공고 가능

신청방법

▪ **접수처**
- 접수기간
  (1차) 2022년 7월 27일 ~ 2022년 8월 19일
  (2차) 2022년 8월 22일 ~ 2022년 9월 9일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www.i-Tube.or.kr, 아이튜브)
  * [붙임] 참여기업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

▪ **상담 및 문의처**

서비스분야	수행기관	수행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기전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시험 분석 연구센터	박 주 철 책임연구원	1533-0101 (전기전자 5)
텍스트로닉스 기능성 소재·부품·제품	FITI 시험연구원	소재 부품 신뢰성센터	이 경 은 선임연구원	02) 3299-8141
산업용 비전 카메라 광학부품	한국광기술원	지능형광학모듈 연구센터	김 대 근 선임연구원	062) 605-9266
차세대 디스플레이 제품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실감미디어 연구센터	김 재 윤 선임연구원	054) 460-9057

산업통상자원부 beyond leading technology KIAT 한국산업기술진흥원 GERI 구미전자정보기술원